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表病의 益氣 및 升陽 治法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¹
朴修玄¹ · 丁彰炫¹ · 白裕相¹ · 張祐彰¹ **

A Study of the Treatment Method of Ikgi(益氣) and Seung-yang(升陽) in the Soeumin Exterior Disease

Park Su-hyun¹ · Jeong Chang-hyun¹ · Baik You-sang · Jang Woo-chang¹ **

¹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written by Ijema(李濟馬), is about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diseases according to the four constitutions, Soeum, Soyang, Taeum and Taeyang. He presents a precise pathogenic mechanism along with specific treatment methods of the Ulgwang(鬱狂) Syndrome which are Seungbo(升補) and Ikgiseung-yang[益氣而升陽] in comparing Mang-yang(亡陽) and Ulgwang Syndromes. However, in the case of the Mang-yang Syndrome, he merely presents formulas without mentioning details of the treatment methods. In this study, the formulas of the Mang-yang Syndrome and Ulgwang Syndrome were thoroughly compared and analyzed,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cept of the Ikgi(益氣) method matches that of the Bojung-ikgitang(補中益氣湯) of Idongwon(李東垣), consisted of ingredients such as Ginseng, Radix Astragali, Radix Angelicae Gigantis, Rhizoma Atractylodis Macrocephalae etc., and the concept of Seung-yang matches that of Gyejitang(桂枝湯).

Furthermore, we have examined the addition of Radix Aconti Lateralis Preparata[附子] to the Ikgiseung-yang[益氣而升陽] method to be aimed at restoring the Yanggi(陽氣). Lastly, through comparison of formulas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Mang-yang Syndrome and Ulgwang Syndrome, we have presented a mor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each treatment methods: the Mang-yang Syndrome focuses more on Seung-yang(升陽), Ulgwang leans more towards Ikgi(益氣).

Key Words : ikgi(益氣), seung-yang(升陽), mang-yang(亡陽), ulgwang(鬱狂),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soeumin.

I. 序論

* 이 논문은 '2007년도 2단계 두뇌한국21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임.

** 교신저자 : 張祐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전화) 02) 961-0735, E-mail : jangchang@khu.ac.kr
접수일(2009년 4월 25일), 수정일(2009년 5월 9일),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5일)

論」에서 “已爲兩路分岐, 元不相合”¹⁾이라고 하여, 少陰人 表病 가운데 鬱狂證과 亡陽證이 원래부터 다른 가지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 治法에 대해서는 鬱狂證만 ‘升補’, ‘和解’와 ‘益氣而升陽’의 관점을 제시하였을 뿐 亡陽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에서 亡陽證의 치법을 ‘益氣升陽’, ‘回陽益氣’등으로 확정하여 말하고 있다. 김용국은 李濟馬의 亡陽證이 證治醫學의 그것에 비해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지님을 지적하면서 治法에 대해서도 ‘升陽益氣, 回陽益氣’를 언급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²⁾ 임진희 등 역시 李濟馬가 少陰人 表病의 치법으로 ‘益氣而升陽’을 제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鬱狂證의 治法으로 제시된 이 방법이 少陰人 表病의 일반 治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³⁾

이의주 등이 『東醫壽世保元』의 「臟腑論」의 前四海, 後四海, 臟, 腑 등의 용어를 차용하여 少陰人 表裏病의 병리적인 기전을 설명하고자 한 사례⁴⁾는, 여기서 도입된 방법론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때 주목할 만한 시도로 평가된다. 확실히 「臟腑論」은 李濟馬가 직접 기술한 내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東醫壽世保元』의 病證論을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며, 이러한 연구방법은 『東醫壽世保元』의 病證論을 해석의 도구로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에서 亡陽證에 관하여 李濟馬가 직접 「臟腑論」의 논리를 활용하여 病證의 병기를 해석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臟腑論」의 개념을 차용한 일반적인 수준의 병리모델의 구성은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임의적이며, 불완전한 수준일 수밖에

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筆者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일반화를 추구하기보다는, 李濟馬의 경험과 논리 내에서 病證과 治法의 원형에 대한 탐구를 선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甲午本 등의 관련 자료 역시, 완성도가 높은 辛丑本의 내용과 논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이 한정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는 결국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비약과 그에 따른 오류를 최대한 회피하자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研究에서는 가급적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내에 기술된 少陰人 관련 내용들을 바탕으로 少陰人 表病 亡陽證의 治法에 대해 검토, 고찰하고자 하였다. 少陰人 表病에 있어 亡陽證은 鬱狂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亡陽證과 鬱狂證에 대한 다양한 비교, 검토가 수행되어야 했다. 구체적으로 본 研究에서는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 治法으로 李濟馬가 제시한 ‘益氣而升陽’에 주목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련 處方과 약물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少陰人 亡陽證의 治法을 추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亡陽證과 鬱狂證의 治法이 지니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 분석함을 주된 과제로 삼았다.

II. 本論

1. 少陰人 亡陽證의 定義와 治法의 문제

李濟馬는 李梴 『醫學入門』의 내용, 즉 “汗多不止 謂之亡陽 如心痞胸煩 面青膚潤者 難治 色黃手足溫者可治 凡汗漏不止 眞陽脫亡故 謂之亡陽”⁵⁾을 인용하여 증후적으로 ‘汗多不止’가 ‘亡陽’으로서, 이 病證은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胃家實脾約二病 如陰證之太陰少陰病 虛實證狀顯然不同 自太陽病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岐 元不相合.”

2) 김용국. 亡陽, 亡陰證에 대한 證治醫學과 四象醫學과의 比較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1. 3(1). pp.85-86.

3)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舊本)과 辛丑本(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 p.65.

4) 이의주, 송일병. 少陰人·少陽人篇의 表裏病에 대한 考察 (表裏陰陽升降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6. 8(1). p.43.

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4. “李梴醫學入門曰 汗多不止 謂之亡陽 如心痞胸煩 面青膚潤者 難治 色黃手足溫者 可治 凡汗漏不止 眞陽脫亡故 謂之亡陽 其身必冷 多成痲寒 四肢拘急 桂枝附子湯主之”

병리적으로 ‘眞陽脫亡’을 의미하는 危證임을 지적하였다. 李濟馬에 의하면 亡陽證은 ‘發熱惡寒’으로 시작되는 少陰人 表病⁶⁾의 한 유형으로서 ‘亡陽’을 표지하는 ‘自汗’과 함께 시작되어 처음부터 險證이고 自汗出이 계속 진행되면 곧바로 危證으로 빠지는⁷⁾ 극히 위험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少陰人 表病의 또 다른 유형인 鬱狂證에 비해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때문에 임상적 경과를 『傷寒論』의 太陽病과 陽明病의 증상을 인용하여, 危重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初中末로 구분하였다.

亡陽證의 단계	證狀
初證	太陽病 發熱惡寒汗自出者
中證	陽明病 不惡寒反惡熱汗自出者
末證	陽明病 發熱汗多者

표 1. 少陰人 亡陽證의 임상적 경과⁸⁾

그리고 그 치료 대책에 대해 ‘發熱惡寒而有汗者’의 初證에 ‘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을 제시하였으며, ‘三日連服而 汗不止 病不愈則’인 경우에는 ‘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을 제시하여, 각기 自汗의 양태를 중심으로 임상적 경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⁹⁾

少陰人 表病에서 亡陽證이 危證인 까닭은 少陰人의 脾少한 체질과 관련이 있다. 李濟馬는 少陰人 表病과 自汗의 관련에 대해 “蓋少陰人病候 自汗不出則 脾不弱也”¹⁰⁾라고 하였는데, 이를 대우로 해석하면

少陰人이 脾가 弱하면 自汗이 出하는 것이 된다. 少陰人 表病의 다른 유형으로서 鬱狂證은 시종일관 自汗이 나지 않는데 비하여¹¹⁾ 亡陽證은 발병 초기부터 곧바로 自汗이 出한다. 이는 鬱狂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脾가 취약하여 발병 초기부터 脾小의 약점이 곧바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眞陽脫亡’을 뜻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기존 연구에서 亡陽證 治法으로 제시한 ‘益氣升陽, 回陽益氣’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서를 상세하게 고찰해보면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단서는 鬱狂證과 亡陽證에 공통으로 쓰인 處方 黃耆桂枝湯에 있다. 즉, 李濟馬는 亡陽證의 치료 대책으로 初證인 ‘發熱惡寒而有汗者’의 단계에서 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을 제시하였는데, 3가지 處方 가운데 黃耆桂枝湯은 亡陽의 初證 뿐 아니라 鬱狂의 初證에서도 사용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李濟馬는 “腎陽困熱則當用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 升補之”라고 하여 黃耆桂枝湯의 목적이 ‘升補’에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¹²⁾ 이는 뒷장에서 鬱狂證의 治法으로 상세하게 논구하게 될 ‘升補’의 방법이 亡陽證의 治法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물론 鬱狂證 腎陽困熱에 사용한 3가지 處方 가운데 黃耆桂枝湯을 제외한 川芎桂枝湯과 八物君子湯은 亡陽證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升補’의 治法이 亡陽證에 완전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黃耆桂枝湯의 존재를 통하여 亡陽證과 鬱狂證의 治法 사이에 어느 정도 교집합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鬱狂證 治法 ‘益氣而升陽’

李濟馬는 亡陽證에 대해 구체적인 治法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鬱狂證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升補’와

2005. p.653. “蓋少陰人病候 自汗不出則脾不弱也”

1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蓋鬱狂證 都是身熱 自汗不出也”

1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腎陽困熱則當用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 升補之”

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論曰 張仲景所論太陽傷風發熱惡寒者 卽少陰人腎受熱表熱病也”

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陰證之少陰病 陽證之亡陽病 有險證危證也 亡陽少陰病 自初痛 已爲險證 繼而危證也.”

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6. “太陽病 發熱惡寒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陽明病 不惡寒反惡熱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陽明病 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發熱惡寒而 有汗者 此 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 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三日連服而 汗不止 病不愈則 當用 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1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和解’, 그리고 ‘益氣而升陽’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보면 鬱狂證의 병리적 상황을 腎陽困熱과 大腸怕寒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腎陽困熱에는 川芎桂枝湯黃耆桂枝湯八物君子湯으로 ‘升補’하고¹³⁾, 大腸怕寒에는 藿香正氣散·香砂養胃湯으로 ‘和解’하여 치료한다고 하였으며,¹⁴⁾ 또한 鬱狂證의 기전과 증상을 제차 설명하면서 ‘益氣而升陽’의 治法을 다시 제시하였다¹⁵⁾.

‘升補’와 益氣而升陽은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升補’에서 ‘升’과 ‘補’로 나누어 살펴보면 ‘升’은 ‘升陽’의 의미하고 ‘補’는 ‘益氣, 補中益氣’를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升補’는 ‘益氣而升陽’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升補’를 ‘升’과 ‘補’로 나누어 볼 수 있음은, 李濟馬가 鬱狂證을 설명하면서 八物君子湯에 대해 ‘峻補’하는 處方이라고 하여 ‘升補’ 가운데 ‘補’를 떼어서 기술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⁶⁾ 이는 八物君子湯이 ‘升補’하는 處方이지만 ‘升’과 ‘補’ 가운데 ‘補’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처방임을 지적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鬱狂證의 治法으로 ‘升補’와 함께 언급된 ‘和解’는 ‘益氣而升陽’을 의미하는 ‘升補’와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즉 ‘和解’하는 處方으로 제시된 藿香正氣散과 香砂養胃湯은 少陰人 表病 뿐만 아니라 裏病에서도 ‘太陰證 下利清穀者’에 ‘溫胃而降陰’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處方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그에 비해 ‘升補’하는 處方으로 제시된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은 순수하게 表病에

서만 제시되고 있다. 이상을 통해 鬱狂證의 치료에 있어 ‘升補’에 해당하는 處方이 ‘和解’에 해당하는 處方に 비해 중심이 되고 있으며, ‘和解’하는 處方은 升補하는 생리적인 작용이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을 보조적으로 다스릴 목적으로 부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益氣’와 ‘升陽’의 의미

鬱狂證의 治法에서 ‘升補’가 주가 되며 ‘升補’는 사실상 ‘益氣而升陽’과 동일한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이제 亡陽證 治法의 도출이라는 본 研究의 중심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좀 더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李濟馬에 있어 ‘益氣’와 ‘升陽’의 의미 차이를 짚어 보고자 한다.

李濟馬가 少陰人 表病에 제정한 處方 가운데 ‘益氣’와 ‘升陽’의 의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는 鬱狂證에서 腎陽困熱에 ‘升補’하는 의미로 사용한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과 亡陽 初證에 활용한 處方으로 補中益氣湯과 升陽益氣湯을 들 수 있다. 특히 補中益氣湯과 升陽益氣湯은 方名에 모두 ‘益氣’가 들어있음을 볼 때, 공통적으로 ‘益氣’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 處方에 중복되는 약물들을 분석함으로써 李濟馬가 인식한 ‘益氣’의 治法이 處方 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補中益氣湯¹⁸⁾과 升陽益氣湯¹⁹⁾에서 중복되는 약물은 人蔘, 黃芪, 炙甘草, 當歸, 生薑, 大棗이므로, 대체적으로 이 약물들에 의하여 ‘益氣’의 목적이 구현됨을 짐작할 수 있는데, 특히 人蔘과 黃芪가 ‘益氣’의 중심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升陽益氣湯과 補中益氣湯에서 ‘益氣’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升陽益氣湯은 ‘升陽’, 補中益氣湯은 ‘補中’이 남게 된다. 따라서 ‘升陽’은 升陽益氣湯의 구성 약

1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腎陽困熱則當用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 升補之”
 1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大腸怕寒則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和解之”
 1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此證 益氣而升陽則 得其上策也 破血而解熱則 出於下計也”
 1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若外熱包裡冷而毒氣重結於內 或將有養虎遺患之弊則當用巴豆丹 下利一二度 因以藿香正氣散 八物君子湯 和解而峻補之”
 1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9. “太陰證 下利清穀者 當用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1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7. “補中益氣湯 人蔘 黃芪 各二錢 甘草 炙 白朮 當歸 陳皮 各一錢 藿香 蘇葉 各三分或五分 薑 三片 棗 二枚”
 1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7. “升陽益氣湯 人蔘 桂枝 黃芪 白芍藥 各二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甘草 炙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물 가운데 補中益氣湯과 중복되지 않는 약물인 桂枝, 白芍藥, 白何首烏, 官桂에 의해 대체적으로 구현됨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官桂와 白何首烏는 주로 裏病에 활용되는 약물이므로 表病에서의 ‘升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물론 表病 處方인 黃耆桂枝湯과 升陽益氣湯에 白何首烏가 들어있고, 官桂의 경우 升陽益氣湯에 들어가므로, 官桂와 白何首烏를 少陰人 表病에 쓸 수 없는 약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白何烏理中湯과 官桂附子理中湯, 赤白何烏寬中湯 등과 같은 少陰人 裏病의 중심적인 처방에 대체로 官桂와 白何首烏가 들어있음을 볼 때 白何首烏와 官桂는 裏病의 주요 약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升陽益氣湯에서 ‘升陽’의 목적은 桂枝와 白芍藥의 주도로 달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약물들은 升陽益氣湯에 이미 들어있는 炙甘草, 生薑, 大棗와 합하면 결국 桂枝湯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李濟馬의 ‘升陽’ 治法을 處方の 관점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桂枝湯이라는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

‘升陽’이 사실상 桂枝湯에 의해 구현되고 있음은 李濟馬 자신이 鬱狂證 腎陽困熱에 ‘升補’를 목적으로 制方한 세 處方 가운데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이 桂枝湯을 모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볼 때에도 확인된다. ‘升補’의 또 다른 處方인 八物君子湯²⁰⁾의 경우는 桂枝湯의 구성 약물 가운데 桂枝가 빠져있으며, 川芎桂枝湯과 黃耆桂枝湯에 비해 白芍藥의 양이 1錢 줄어 1錢만 들어있으므로, 桂枝湯과의 관련이 부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桂枝를 제외한 나머지 약물이 모두 들어있으므로 桂枝湯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곤란하다. 이러한 차이는 李濟馬 자신의 ‘峻補’²¹⁾라고 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 八物君子湯이 두 處方 즉 川芎桂枝湯과 黃耆桂枝湯과 비교해 볼 때 ‘升陽’보다는 ‘益氣’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八物君子湯이 『東醫寶鑑』²²⁾에 기록된 李東垣의 補中益氣湯²³⁾ 가운데 升麻와 柴胡를 제외한 모든 약물을 포함함을 볼 때에도, ‘升陽’의 의미를 어느 정도 포함하면서 ‘益氣’에 초점을 맞춘 處方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방법으로, 補中益氣湯에 포함되어 있고 升陽益氣湯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白朮, 陳皮, 藿香, 蘇葉에 의해 ‘補中’의 의미가 구현됨을 알 수 있다. 앞서 補中益氣湯과 升陽益氣湯 두 處方に 모두 속한 약물을 중심으로 ‘益氣’의 주체를 살핀 바 있는데, 이를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李濟馬의 ‘益氣’를 대체적으로 표현해주는 약물인 人蔘, 黃芪, 炙甘草, 當歸, 生薑, 大棗 중에서 桂枝湯에 속하는 炙甘草와 生薑, 大棗를 뺀 나머지만인 약물인 人蔘, 黃芪, 當歸와 甘草는 모두 『東醫寶鑑』에 수록된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에 포함되는 약물이다. 그리고 補中益氣湯에만 있고 升陽益氣湯에는 없는 白朮, 陳皮, 藿香, 蘇葉 가운데 白朮과 陳皮는 李東垣 補中益氣湯에 포함되어 있는 약물이고, 藿香과 蘇葉은 李濟馬가 자신의 補中益氣湯에 새롭게 추가한 약물이다. 따라서 李濟馬가 생각하는 ‘補中’의 의미는 白朮, 陳皮, 藿香, 蘇葉에 의해 대체적으로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²⁴⁾

22)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東醫寶鑑』을 통해 醫道가 다시 興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許浚 具備傳之 著東醫寶鑑 醫道復興.), 許浚을 최고의 名醫로 꼽았다. (若以醫家勤勞功業 論之則 當以張仲景 朱肱 許浚 爲首 而 李樞 龔信 次之.)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東醫寶鑑』에 실린 補中益氣湯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음을 밝힌다.

23)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212. “黃芪 一錢半, 人蔘 白朮 甘草 各一錢, 當歸 陳皮 各五分, 升麻 柴胡 各三分. 右剉, 作一貼, 水煎服. (東垣).”

24)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李濟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濟馬는 人蔘, 黃芪, 當歸, 白朮, 陳皮, 甘草를 통하여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의 方義를 수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李東垣의 補中益氣湯 중 少陰人에게 적합하지 않은 升麻와 柴胡를 제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升麻, 柴胡 대신 少陰人에게 적합한 藿香, 蘇葉을 추가하여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制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사용된 藿香, 蘇葉이 李濟馬의 藿香正氣散에서 君藥에 해당하는 약물인 점을 고려하면, 李東垣 補中益氣湯에 藿香正氣散의 概念을 더하여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少陰人 藿香正氣散의 경우 乾薑 등의 藥材가 들어가기 때문에 藿

2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8. “八物君子湯 人蔘 二錢 黃芪 白朮 白芍藥 當歸 川芎 陳皮 甘草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2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若外熱包裡冷而毒氣重結於內 或將有養虎遺患之弊則當用巴豆丹 下利一二度 因以藿香正氣散 八物君子湯 和解而峻補之”

이상을 요약해 보면, 李濟馬에 있어 ‘升陽’의 의미는 桂枝湯으로 구현되며, ‘補中益氣’의 의미는 李東垣 補中益氣湯에서 升麻, 柴胡가 藿香, 蘇葉으로 교체됨에 의해 구현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李濟馬의 ‘升陽’과 ‘益氣’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升陽’은 ‘益氣’에 비해 表에 작용하며, ‘益氣’는 ‘升陽’에 비해 裏에 작용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4. 亡陽證 處方 분석

이상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李濟馬가 亡陽證에 사용한 處方들을 분석해보면 亡陽證의 治法에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李濟馬는 ‘發熱惡寒而有汗’의 亡陽 初證인 경우 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을 사용하였다.²⁵⁾ 黃耆桂枝湯은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鬱狂證의 腎陽因熱에도 ‘升補’ 또는 ‘益氣而升陽’을 목적으로 사용된 處方이다. 따라서 少陰人 亡陽證의 치법 역시 ‘益氣而升陽’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補中益氣湯과 升陽益氣湯을 통해 볼 때, ‘益氣’를 공통으로 ‘補中’과 ‘升陽’으로 주안점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세 處方 모두 ‘益氣’에 대한 개념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少陰人 亡陽證의 ‘發熱惡寒而有汗’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상황에서 李濟馬는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을 제시하였다.²⁶⁾ 升陽益氣附子湯²⁷⁾은 升陽益氣

湯에 炮附子가 1錢 혹은 2錢이 더해진 處方이므로 升陽益氣湯의 맥락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炮附子の 작용을 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升陽益氣湯이 목표하는 ‘益氣而升陽’의 治法이 亡陽證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서 補中益氣湯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亡陽證에 있어 升陽益氣湯의 方義가 補中益氣湯에 비해 더욱 중심적인 맥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升陽益氣’가 亡陽證 治法の 중심적인 맥락이 됨을 알 수 있다.

人蔘桂枝附子湯은 桂枝附子湯에 人蔘, 黃芪, 當歸를 더한 處方으로, 人蔘이 4錢이나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亡陽에 있어 人蔘의 중요성은 직접 기술한 亡陽證 治驗例에서 人蔘 5錢, 附子 2錢을 쓴 사례에서도 확인된다.²⁸⁾ 이를 바탕으로 人蔘桂枝附子湯의 構成과 鬱狂證에서 ‘峻補’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八物君子湯의 構成을 비교해보면 亡陽證에 적용된 ‘益氣而升陽’에 대한 관점이 더욱 명확해짐을 알 수 있다. 人蔘桂枝附子湯에는 八物君子湯에서 사용한 白朮, 川芎, 陳皮가 빠진 대신 桂枝 3錢이 더해져있으며, 무엇보다 人蔘은 八物君子湯의 2錢에 비해 배인 4錢이 사용되었다. 李濟馬는 少陰人에게 人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는 좋은 人蔘 1냥을 사용하여 傷寒 壞證을 치료한 朱丹溪의 治驗例를 특필한 사례²⁹⁾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다.³⁰⁾ 李濟馬는 人蔘의 효능을 白何首烏와 비교하여 ‘清越之力’이 뛰어나다고 표현하였는데,³¹⁾ 이를 통해 볼

香正氣散의 表裏를 모두 다스리는 작용 중 表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작용하는 藿香과 蘇葉의 概念을 補中益氣湯에 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發熱惡寒而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2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當用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2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7. “升陽益氣湯 人蔘 桂枝 黃芪 白芍藥 各二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甘草灸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升陽益氣附子湯 人蔘 桂枝 白芍藥 黃芪 各二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甘草灸 各一錢 附子炮 一錢或二錢 薑 三片 棗 二枚”

2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5. “其翌日 又用人蔘桂枝附子湯 人蔘五錢 附子二煎三貼 食粥二三匙 每用藥後則身清涼無汗 小便稍多而大便必通”
 2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傷寒壞證 昏沈垂死 一切危急之證 好人蔘一兩 水煎一服而盡 汗自鼻梁上出 涓涓如水”
 30) 少陽人의 石膏는 少陰人의 人蔘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李濟馬가 少陽人 傷寒의 熱多寒少病에서 陽毒發斑으로 이미 風이 動해 감에 주저 없이 石膏 1斤을 사용한 治驗例를 들 수 있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8. “其後 又有少陽人一人 得傷寒熱多寒少之病 有人 教服雉肉湯 仍成陽毒發斑... 已有動風之漸 而耳聾語 舌上白胎 藥囊祇有石膏一斤 滑石一兩 而無他藥”)

때에도 人蔘의 補하는 힘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人蔘桂枝附子湯에서 桂枝附子湯에 비해 人蔘을 배로 썼다는 사실을 통해,³²⁾ 人蔘桂枝附子湯이 八物君子湯의 峻補에 비해 質의인 차이가 있지만 補하는 역량에 있어서는 그에 밀리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人蔘桂枝附子湯³³⁾은 桂枝湯에 人蔘, 黃芪, 當歸, 附子가 더해진 處方으로서,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升陽’을 의미하는 桂枝湯과 ‘益氣’를 의미하는 人蔘, 黃芪, 當歸가 들어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益氣而升陽’의 원칙하에 附子가 더해진 處方임을 알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桂枝附子湯은 張仲景의 『傷寒論』에 기재된 桂枝湯에 附子를 더한 桂枝加附子湯의 구성이며, 실제로 『東醫壽世保元』 내에서는 宋元明醫의 方으로 李樞의 處方이 인용되어 있다. 李濟馬는 “仲景 太陽陽明病藥方中 惟桂枝湯 人蔘桂枝湯 得其彷彿”³⁴⁾이라 하여 少陰人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確실한 처방으로 본 桂枝湯을 바탕으로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桂枝附子湯, 升陽益氣湯, 升陽益氣附子湯으로 處方을 확장시켜 가면서 亡陽證이라는 틀 안에서 處方을 운용하였다. 이 중 桂枝附子湯은 桂枝湯에 附子 3錢 多量을 더함으로써 亡陽證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 활용한 處方인데, 여기서 附子 3錢은 亡陽證의 같은 단계에 사용한 人蔘桂枝附子湯과 升陽益氣附子湯에서 사용한 一錢或二錢에 比할 때에 가장 많은 분량이다. 또한 이들 處方에 비해 人蔘, 黃芪 등의 약물이 빠져있음을 볼 때 附子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桂枝附子湯은 處方 構成상 人蔘桂枝附子湯과 升陽益氣附子湯의 處方 안에 포함되므로 桂枝附

子湯의 의미가 人蔘桂枝附子湯과 升陽益氣附子湯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³⁵⁾

5. 鬱狂證 治法과 亡陽證 治法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금까지 李濟馬가 제시한 少陰人 表病의 亡陽證과 鬱狂證의 治法은 모두 공통적으로 ‘益氣而升陽’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亡陽과 鬱狂은 李濟馬 자신이 지적하였듯이 엄연히 갈래가 다른 病이므로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鬱狂證의 경우 腎陽因熱에 사용하는 川芎桂枝湯과 黃耆桂枝湯, 八物君子湯 모두 ‘升補’하는 處方이지만, 李濟馬가 나열한 處方 순서대로 점차 ‘升陽’하는 작용에서 ‘益氣’하는 작용으로 그 治法의 중심이 순차적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升’에서 ‘補’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桂枝湯에 가미된 약물을 바탕으로 川芎桂枝湯과 黃耆桂枝湯을 비교해 보면 川芎, 蒼朮, 陳皮가 가미된 川芎桂枝湯은 ‘升陽’에 더 가깝고, 黃芪, 白何首烏, 當歸가 가미된 黃耆桂枝湯은 ‘益氣’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黃耆桂枝湯이 ‘益氣’에 가까움은 黃芪와 白何首烏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黃芪는 앞서 ‘益氣’에 있어 人蔘과 함께 주요 약물임을 고찰한 바 있다. 또한 川芎桂枝湯에 가미된 川芎, 蒼朮, 陳皮가 각 1錢인데 비하여 黃耆桂枝湯의 黃芪는 2錢이 들어있음을 통해 볼 때, 川芎桂枝湯의 陳皮가 補中益氣湯에 포함된 약물로서 黃芪만큼의 補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黃耆桂枝湯의 ‘益氣’하는 힘

3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1. “白何首烏 與人蔘 性味相近 而清越之力 不及 溫補之力 過之 不無異同之處”
32) 少陰人 亡陽證 治驗例에서는 五錢으로 두 배 이상의 人蔘을 사용하였다.
3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7. “人蔘桂枝附子湯 人蔘 四錢 桂枝 三錢 白芍藥 黃芪 各二錢 當歸 甘草灸 各一錢 附子炮 一錢或二錢 薑 三片 棗 二枚”
3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仲景 太陽陽明病藥方中 惟桂枝湯 人蔘桂枝湯 得其彷彿”

3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4. “桂枝附子湯 附子炮 桂枝 各三錢 白芍藥 二錢 甘草灸 一錢 薑 三片 棗 二枚”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7. “人蔘桂枝附子湯 人蔘 四錢 桂枝 三錢 白芍藥 黃芪 各二錢 當歸 甘草灸 各一錢 附子炮 一錢或二錢 薑 三片 棗 二枚”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7. “升陽益氣附子湯 人蔘 桂枝 白芍藥 黃芪 各二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甘草灸 各一錢 附子炮 一錢或二錢 薑 三片 棗 二枚”

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白何首烏의 경우 人蔘의 補하는 힘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李濟馬 스스로 人蔘과 代用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人蔘과 같이 ‘益氣’의 힘이 넉넉함을 알 수 있다.³⁶⁾ 그러므로 白何首烏가 포함되지 않은 川芎桂枝湯에 비해 黃耆桂枝湯의 ‘益氣’ 작용이 더 強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黃耆桂枝湯은 黃芪와 白何首烏가 있으므로 川芎桂枝湯에 비해 ‘益氣’의 힘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八物君子湯은 黃耆桂枝湯에 비해 더욱 ‘益氣’의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八物君子湯의 경우 桂枝湯 중 桂枝가 빠지고 白芍藥, 生薑, 大棗, 甘草가 들어가는데, 白芍藥이 2錢에서 1錢으로 減量되었다. 이를 통해 桂枝湯의 ‘升陽’하는 작용이 경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八物君子湯에는 白何首烏보다 ‘益氣’하는 작용이 더욱 強한 人蔘이 黃耆桂枝湯의 白何首烏 1錢보다 많은 양인 2錢으로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八物君子湯은 黃耆桂枝湯에 비해 ‘升陽’하는 작용은 줄어들었지만, ‘益氣’하는 작용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李濟馬 자신이 八物君子湯을 들어 특별히 ‘峻補’하는 處方이라고 따로 언급한 바 있다.

‘峻補’의 八物君子湯은 李濟馬가 鬱狂證을 치료하는 데 있어 중심에 둔 處方이다. 때문에 鬱狂 末證의 경우에 巴豆 全粒을 쓰는 동시에 八物君子湯에서 人蔘을 1兩 추가한 獨蔘八物君子湯을 사용하거나, 巴豆를 먼저 쓰고 八物君子湯을 쓰라고 말하고 있다.³⁷⁾ 이를 통해 鬱狂證이 末證으로 진행될수록 獨蔘八物君子湯의 예에서 보이듯이 ‘升陽’보다 ‘益氣’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鬱狂證의 治法은 개략적으로 ‘益氣而升陽’이지만 鬱狂證이 진행될수록 ‘升陽’보다 ‘益氣’로 그 治法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鬱狂에 있어 張仲景이 結實을 기다려 承氣의 下法을 사용한 것과 달리 李濟馬는 少陰人의 체질적 특성을 간파하여 ‘益氣’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점은 李濟馬가 張仲景과 견해를 달리하는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金元 名家의 다양한 治驗例를 들어가며 집중적으로 논과하고 있다.

李濟馬는 許叔微 『本事方』의 醫案에서 大承氣湯보다 약력이 弱한 小承氣湯을 사용하여 치료한 예를 들어,³⁸⁾ 이 證이 기본적으로 陽氣가 實해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라 虛해서 발생하는 證狀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王好古 『海藏書』의 醫案에서 傷寒發狂에 柴胡湯을 쓰고 악화된 病證을 人蔘, 黃芪, 當歸, 白朮, 陳皮, 甘草 등을 먹여 치료한 예를 들어³⁹⁾ 역시 少陰人 鬱狂證이 陽氣가 虛하여 발생하므로 ‘益氣’하는 약물을 위주로 치료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成無已 『明理論』에서 潮熱이 없으면 下法을 금한 例⁴⁰⁾와 朱震亨 『丹溪心法』에 傷寒 壞證으로 거의 죽게 된 경우에 좋은 人蔘 1兩을 한 번에 복용하여 땀이 콧마루에서부터 나오되 물과 같이 뚝뚝 떨어진 例⁴¹⁾를 인용하여 鬱狂證이 마지막 단계에서 張仲景이 承氣湯을 쓴 것과 정반대로 人蔘 1兩을 이용하여 ‘益氣’에 주력하였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리고 朱丹溪의 사례는 李濟馬의 鬱狂 末證에 해당하는 處方인 獨蔘八物君子湯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본 論文에서 제

3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1. “白何首烏 與人蔘 性味相近 而清越之力 不及 溫補之力 過之 不無異同之處 險病 危證 人蔘二錢以上 不可全持 白何首烏代用”

3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4. “此胃家實病 不更衣發狂證 當用巴豆全粒 或用獨蔘八物君子湯 或先用巴豆 後用八物君子湯以壓之.”

3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許叔微本事方曰 一人 病傷寒 大便秘利 日晡發潮熱 手循衣縫 兩手撮空 直視喘急 諸醫皆走 此誠惡候 仲景 雖有證而無法 但脈弦者生脈澁者死 謾且救之 與小承氣湯 一服而大便秘 諸疾漸退 脈且微弦 半月愈.”

3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王好古海藏書曰 一人 傷寒發狂欲走 脈虛數 用柴胡湯反劇 以蔘芪歸朮陳皮甘草 煎湯一服 狂定 再服 安睡而愈.”

4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成無已明理論曰 潮熱屬陽明 必於日晡時發者 乃爲潮熱也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胃實則譫語 手足澀然 微汗出者 此 大便秘也. 譫語有潮熱 承氣湯下之, 熱不潮者 勿服.”

4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朱震亨丹溪心法曰 傷寒壞證 昏沈垂死 一切危急之證 好人蔘一兩 水煎一服而盡 汗自鼻竅上出 涓涓如水.”

시한 少陰人 鬱狂證 관련 引用文들은 李濟馬가 인용한 『醫學綱目』의 내용을 생략하여 제시한 것이다. 생략된 『醫學綱目』의 내용은 循衣摸床하는 사람 여러 명에게 氣血을 大補하는 藥을 썼더니 그 중 오직 한 사람만이 눈꺼풀에 경련이 일어나고 代脈이 나오는 證을 검하여서 補劑 중에 桂枝를 조금 가하여 다스리니 또한 눈의 경련이 멎고 脈이 和하여지고 代脈이 없어지면서 나았다는 것이다.⁴²⁾ 여기서 李濟馬는 『醫學綱目』의 引用文을 들어서 鬱狂證의 경우 大補하는 藥으로써 치료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이를 통해 대부분을 치료할 수 있지만, 일부의 경우 代脈과 같이 脈象이 和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금의 桂枝로써 ‘升陽’하는 治法을 검하여 써야 할 경우가 있음을 말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醫學綱目』의 引用文은 人蔘, 黃芪, 當歸, 白朮, 陳皮, 甘草 등을 통해 發狂病을 치료한 예를 제시한 王好古 『海藏書』의 내용 다음에 이어서 실려 있다. 이것은 일관되게 益氣를 통해 치료하는 것이 鬱狂證 治法의 중심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李濟馬는 『醫學綱目』에서 사용한 약간의 桂枝를 통하여 『海藏書』에서 제시한 ‘益氣’하는 治法을 바탕으로 약간의 ‘升陽’하는 治法이 더해질 수 있음을 추가로 논증한 것이다.⁴³⁾ 이는 실제로 李濟馬가 鬱狂證의 處方으로 제시한 川芎桂枝湯과 黃耆桂枝湯에서 桂枝를 사용한 것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용한 八物君子湯의 경우 桂枝가 빠져있지만, 앞서 王好古의 『海藏書』에서 언급된 약물들에 속하지 않으면서 桂枝湯의 구성약물에 속하는 白芍藥, 生薑, 大棗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桂枝湯의 脈을 和하게 하는 작용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少陰人 鬱狂證 관련 인용문들을 정리하면, 鬱狂 末證에 조금의 桂枝를 가하는 것은 鬱狂 末證에 ‘升陽’의 治法이 약간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좋은 人蔘 1兩을 쓴 예는 李濟馬가 鬱狂 末證에 獨蔘八物君子湯을 쓰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鬱狂이 末證으로 갈수록 ‘益氣’ 治法에 더욱 주안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亡陽證의 경우에는 ‘發熱惡寒而有汗’의 단계에 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을 사용하였지만, ‘三日連服而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서는 黃耆桂枝湯과 補中益氣湯은 빠지고 升陽益氣湯은 升陽益氣附子湯을 사용하였다. 이는 亡陽證에 있어서는 鬱狂證에 비해 病이 진행될수록 人蔘과 黃芪가 3錢씩 사용된 補中益氣湯의 ‘益氣’에 비해 人蔘과 黃芪는 2錢으로 줄고 桂枝와 官桂가 추가로 들어간 升陽益氣湯의 ‘升陽’이 더욱 중점이 됨을 보여 준다. 亡陽證의 治法이 鬱狂證의 그것과 비교할 때 ‘升陽’에 더욱 중점이 있음은, 鬱狂證과 亡陽證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處方의 ‘升陽’작용과 ‘益氣’작용의 強弱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少陰人 鬱狂 末證의 경우 人蔘이 1兩 들어가는 獨蔘八物君子湯을 쓰는데 비하여, 亡陽 末證의 경우는 人蔘이 4錢 혹은 5錢에 그치는 人蔘桂枝附子湯을 쓴다. 少陰人 表病에서 亡陽證이든 鬱狂證이든 病勢가 진행될수록 人蔘의 용량이 증가하는데, 鬱狂 末證의 경우 亡陽 末證에 비해 人蔘이 두 배 이상 많이 쓰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鬱狂證의 治法이 益氣에 더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鬱狂證은 末證에 가셔도 桂枝가 다시 들어가지 않는데 비해 亡陽證은 ‘三日連服而汗不止病不愈則’의 단계에 쓰이는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에 모두 桂枝湯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亡陽證의 경우 末證으로 진행

42) 李濟馬가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내용 중 ‘略加桂’에 대하여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550.’에서는 ‘보제 중에 계지-관계를 가하여’라고 하였다. 본 논문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본다면 ‘보제 중에 계지를 조금 가하여’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3) 『東醫壽世保元』에 실린 王好古 『海藏書』와 『醫學綱目』의 引用文은 기술 순서와 내용 모두 그대로 『東醫寶鑑』에 수록되어 있다.(許浚 著, 대한형상의학회,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056. : 12-8 陽明虛證宜補 ① 一人傷寒, 發狂欲走, 脈虛數, 用柴胡湯反劇. 以參芪, 歸朮, 陳皮, 甘草煎湯, 一服狂定, 再服安睡而愈. [海藏] ② 嘗治循衣摸床者, 數人皆用大補氣血之劑. 惟一人兼調振脈代, 遂於補劑中略加桂, 亦振止脈和而愈. [綱目]) 따라서 李濟馬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엄밀히 말한다면 李濟馬가 『東醫寶鑑』의 저자인 許浚의 생각에 동의하여 해당부분을 그대로 채용함으로써 少陰人 鬱狂證에 인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되는 경우에도 ‘升陽’의 의미가 줄곧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亡陽證과 鬱狂證 모두 ‘益氣而升陽’이 기본적인 治法이지만, 亡陽證은 病勢가 진행될수록 ‘益氣’보다 ‘升陽’에 치중하고, 鬱狂證은 病勢가 진행될수록 ‘升陽’보다 ‘益氣’에 치중함을 알 수 있다.

한편, 亡陽證의 경우 病勢가 危重해지면 附子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전의 證治醫學에서 附子를 사용하여 이른바 張元素가 말한 ‘補助陽氣不足’과 李仲梓가 말한 ‘能補命門衰敗之火’, 陳修園이 말한 ‘保復元陽’하는 등의 작용이 추가되어 ‘升陽’하는 治法과 함께 陽氣를 회복하는 治法⁴⁴⁾이 더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⁵⁾

III. 結論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亡陽證과 鬱狂證이 그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가지임을 언급함으로써 기존의 證治醫學에서 다루었던 亡陽證과 鬱狂證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病證에 해당하는 處方을 제시하였는데, 鬱狂證의 경우 ‘益氣而升陽’이라는 治法을 제시하였지만 亡陽證의 경우엔 특별한 治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李濟馬가 創方한 黃耆桂枝湯이 鬱狂證과 亡陽證에 모두 사용됨으로써 鬱狂證과 亡陽證의 治法 상 공통점이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鬱狂證의 治法을 좀 더 엄밀히 분석하여 ‘益氣而升陽’이 鬱狂證 治法의 중심이 됨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李濟馬가 인식한 ‘益氣’와 ‘升陽’의 의미를 處方과 藥材로서 도출함으로써 治法 없이 處方만 제시되어 있는 亡陽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鬱狂證과 亡陽證 治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었

다. 지금까지 논술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李濟馬가 인식한 ‘升陽’은 대체적으로 桂枝湯으로 표현되며, ‘益氣’는 대체적으로 人蔘, 黃芪, 當歸, 甘草 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補中’은 대체적으로 白朮, 陳皮, 藿香, 蘇葉 등으로 표현된다.

2.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과 亡陽證은 모두 ‘益氣而升陽’ 治法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少陰人의 臟腑大小가 기본적으로 脾小한 점과 少陰人의 鬱狂證과 亡陽證이 모두 表病이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은 病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亡陽證에 비해 상대적으로 ‘益氣’와 ‘升陽’ 중 ‘益氣’하는 治法에 중점을 두어 치료하며, 亡陽證의 경우 病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鬱狂證에 비해 상대적으로 ‘益氣’와 ‘升陽’ 중 ‘升陽’하는 治法에 중점을 두어 치료한다. 그리고 少陰人 表病의 亡陽證은 鬱狂證과 달리 末證으로 진행되면서 附子를 사용하는 治法이 더해진다.

본 研究는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를 해석할 때 최대한 李濟馬가 생각한 바와 가깝게 증명해내기 위하여 가급적 『東醫壽世保元』 내의 내용들로 고찰한 것이다. 이러한 研究는 李濟馬가 『醫源論』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음인의 병증약리는 장중경이 거의 상세하게 밝혔으나, 송·원·명의 모든 의학자들이 거의 완벽할 만큼 자세하게 밝혔다.”에 근거하여 진행할 수 있었던 研究이다. 현재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에 관한 研究는 序論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많은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본 論文의 경우 가장 확실하고 오류 없는 해석을 위하여 최대한 病證論 안에서 모든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少陰人과 少陽人까지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분석적인 시각으로 『東醫壽世保元』에 대한 原典 研究가 진행된 후, 李濟馬가 『醫源論』에서 歷代 醫家 중 張仲景, 朱肱, 許浚을 최고로 꼽은 점과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에 인용된 인용문은 인용문

44) 李濟馬는 少陰人에게 附子が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한 바가 없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回陽’의 개념을 차용했음을 밝힌다.

45) 진주표. 상한론용어사전.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p.876-877. 李濟馬는 附子が 少陰人에게 어떠한 방식의 작용을 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득이하게 기존의 『東醫壽世保元』 이전에 附子의 작용을 표현한 것을 들어서 대신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헌 원서보다는 『東醫寶鑑』을 근거로 하고 있다.”등을 고려하여,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의 단순 비교가 아닌 『東醫寶鑑』를 통한 『東醫壽世保元』의 맥락을 유추하고 파악하는 것과 같은 質的인 研究가 향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研究는 李濟馬가 인식한 四象醫學의 원형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밝혀냄으로써 『東醫壽世保元』 病證論 研究 기반의 質的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少陰人 表病의 亡陽證 뿐만 아니라 李濟馬가 「醫源論」에서 기술한 少陰人 六大證과 少陽人 病證論의 주요 病證들을 『東醫壽世保元』 내적으로 분석하는 研究가 앞으로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감출판사. 2005. p.1056.

4. 진주표. 상한론용어사전.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p.876-877.

參考文獻

<논문>

1. 이의주, 송일병. 少陰人·少陽人篇의 表病·裏病에 대한 考察(表裏陰陽升降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6. 8(1). p.43.
2. 김용국. 亡陽, 亡陰證에 대한 證治醫學과 四象醫學과의 比較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1. 3(1). p.79.
3.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舊本)과 辛丑本(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 p.62.
4. 박성식, 송일병. 사상의학의 의학적 연원과 이제마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동의수세보원 인용문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3. 5. p.7.

<단행본>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48, 651, 652, 653, 654, 655, 656, 659, 674, 677, 678, 681, 688.
2.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212.
3. 許浚 著. 대한형상의학회. 동의보감. 경남. 동의

